

경인일보



삼성현(三聖賢)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원효대사,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 등 세 성현을 전승하기 위해 개관했다. /경산시 제공

■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삼성현(三聖賢)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고 많은 양의 저술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원효대사, 한국 유학의 종주로 추앙받으며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그리고 역사, 신화, 향가 등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 삼국유사를 저술한 고려 시대의 국사(國師) 일연선사를 일컫는다. 세 명 모두 경산에서 탄생하고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세 분 성현의 훌륭한 정신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 공간인 동시에 도심 속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세분 성현의 업적과 사상을 조사·연구·전승하기 위해 2015년 4월 30일에 개관했다.

삼성현에 대한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있는 이곳은 매년 특별한 주제의 기획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 건물 옆에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이 있어 원효의 정신을 디지털 미디어로 체험하며

경인일보

역사·체험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교육과 휴식을 위한 명소로서 시민들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나아가 경산 시민들의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삼성현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널리 알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사진 촬영하기 좋은 명소, 반곡지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246에 위치한 반곡지는 300년 수령의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심겨 있어 사진 촬영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다. 2011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에 선정됐고, 2013년 10월에는 안전행정부의 '우리마을 향토자원 Best 3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나뭇가지가 물에 비친 모습은 제각각 매력을 뽐내듯 여러 색깔로 반영된다. 해마다 4월 복사꽃이 한창일 때에는 복사꽃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알려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대략 6~7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곳이다. 카메라를 들고 작품을 찍으려는 사람들이라면 들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유명한 저수지다. 특히 복사꽃이 만개하는 4월에는 자칭 '작가분'들의 치열한 경쟁장이 되는 곳이다.

영상 작품들의 배경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SNS 대박이 난 곳인데 드라마 '아랑사또전' '대왕의 꿈', 영화 '허삼관' 등 촬영지로 유명하다.